

# 친심(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친신(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게 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말

찬송:  
- 감람나무 우리 엄마  
- 생수와 이슬성신  
-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은 어떤 점이 다르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쉽게 되는 것이지, 마귀의 성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의 차이는 바로 마귀의 성품은 변덕쟁이요,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성품인 것이올시다.

###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한도 끝도 없이 참고 견디는 그러한 영인고로 그런고로 이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지, 이제 끝까지 참지 못하고 이제그대로 변덕쟁이 노릇을 하면 이제그대로 언제는 이제그대로 믿었다가 언제는 안 믿고 언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언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바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이제그대로 인내심이 한도 끝도 없는 이제 인내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고로 그런고로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 오늘날 이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신앙 간증담 말씀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이 30일 동안 금식기도 하기 전에 열흘씩 금식기도 하는 것을 딱 먹듯 했다고 영모님이 말씀했죠?

이제그대로 열흘씩 금식기도 하는 것은 거의 평생하다시피 한 사람인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아주 그 어려서 위장도 안 좋고 어려서 이 사람이 훗배를 자주 앓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금식기도를 자주하게 되니까 금식기도를 이제 열흘씩 금식기도를 이제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위장병도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이제그대로 또한 이 사람이 금식기도를 자주하게 되니까 이제그대로 훗배도 나아버릴까? 안 나아버릴까? 나아버리는 거죠?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금식기도를 이 사람이 '열흘씩 금식기도를 자주하다가 나중에는 30일씩 금식기도를 했다'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처음에 말씀을 했어요? 영모님이 말씀을 했어요? 영모님이 말씀했죠? "30일씩 금식기도를 해 가지고 열흘씩 금식기도 하는 건 딱 먹듯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 긴자가 된 거야." 하고 말씀을 했죠?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그대로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안 먹는다 하는 것은 바로 완전히 금욕생활이야? 금욕생활이 아니야? 금욕생활이죠?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기도를 해 본 사람은 알지만 한 3일만 금식을 하게 되면 3일만 금식을 하거나 하면 바로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비가 있는 것이올시다. 제일 고비가 3일인 것이올시다. 이제 3일만 고비를 넘으면 이제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 3일 고비 넘길 때가 가장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그것을 딱 먹듯 했다면 이제 그 금식기도를 딱 먹듯 했다면 얼마나 이제 금욕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다는 것을 그거 하나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거죠?

### 일하기 싫으면 열심히 일하고 즐리면 잠을 안 자고 먹고 싶으면 안 먹는 완전히 반대 생활을 하

그러면서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반대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인정 돼? 인정 안 돼? 인정 되는 거죠? 일하기 싫으면 일을 열심히 일하고 이제 또



메시아(מָשִׁיחַ, Messiah) 조희성님

한 이 사람이 즐리면 잠을 안 자고, 이제그대로 빛이 먹고 싶으면 안 먹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그대로 완전히 반대 생활을 하게 되니까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점점 더 약해져? 강해져?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 약해지는 거죠? 마귀의 영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고로 그런고로 이제 마지막에 마귀를 이기기 쉬웠을까? 마귀를 이기기 어려웠을까? 쉬웠겠죠? 점점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여지없이 멀어버리니까 쉽게 이겼을까? 어렵게 이겼을까? 쉽게 이겼겠죠?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시간을 길게 가지고 오래 오래 길게 길게 이제그대로 참고 참으면서 이제그대로 마귀를 이제그대로 차츰차츰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귀를 여지없이 KO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그대로 나를 못 이겨가지고는 이 길 가지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만날 나한테 지는 사람은 나라는 마귀가 바로 이제 언제가는 기회를 이용해서 가지고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고 갈까?

천당으로 끌고 갈까? 지옥으로 끌고 가요.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이제 나를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버릇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버릇을 가져야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게 되고 마귀한테 유혹을 당하지 않는 거지 이제그대로 제 멋대로 하는 버릇이 있으면 언젠가 마귀가 이제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 안 끌고 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죽여? 안 죽여? 마귀가 죽여 버려!

###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물쭈물하지 않고 지체없이 순복해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이제 생활하는 버릇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한창 바쁘게 사업을 하고 이제그대로 약 삼사십명의 종업원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사를 접어 던지고 너는 나를 따라 와라." 하실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물쭈물 했다고 그랬어

요? 이제 바로 따라 갔다고 그랬어요? 곧 바로 따라 갔다고 그랬죠? 곧 바로 따라 갔어요.

곧 바로 따라가서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제그대로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를 생각하면 바로 뒤돌아보는 음란죄요, 가족을 생각하지 말아라. 가족을 생각하면 바로 가족을 생각하는 관심의 음란죄가 되는고로 이제 그런고로 과거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족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고로 이제그대로 세상을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그대로 "네 모든 마음과 생명과 몸과 모든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맡기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그게 쉽게 될 수 있었을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과 몸과 내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기려면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 없어? 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 맡긴 고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 해야지 이제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만 행동을 해야지 이제 내 멋대로 행동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제그대로 주는 생각만 하게 되어야 이제그대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겼다가 되는 고로 그런고로 내 마음과 내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고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 맡긴 생명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둘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집붙임을 받아야 참 감람나무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성경에도 둘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집붙임을 받아야 참 감람나무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 없어? 성경에 있죠?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그 집붙임을 받으려면 바로 그 원체의 나무에 완전히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원체 나무에 붙어야? 원체 나무에 붙어가지고서야 비로소 완전히 집붙임이 됐다가 되는 고로 원체의 진액이 연결 돼? 연결 안 돼? 연결되는 거죠?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아무리 이제그대로 둘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그 둘 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참 감람나무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쪼개서 이제 붙여 가지고 붙들어 매면 참 감람나무가 돼 버려? 둘 감람나무가 돼 버려?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그런고로 이제 오늘날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무가 이제그대로 죄인의 마귀의 몸이 집붙임이 됐다가 되는 고로 하나님이 돼 버려? 안 돼 버려? 하나님이 돼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바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영에게 집붙임이 되어야 이제그대로 완전히 이제그대로 하나님이 되는 고로 그런고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명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지만 맡기면 바로 하나님이 돼 버리게 되는 고로 그런고로 오늘날 이제그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바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제그대로 영생을 주는 영이야? 죽음의 영이야? 영생의 영이죠?

그런고로 영생의 영이 바로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제 둘 감람나무에 이제그대로 쪼개가지고 이제 끼워 가지고 붙들어 매 두면 참 감람나무가 돼 버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이제그대로 영이 완성의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바로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그대로 완성의 이긴자 구세주가 되는 고로 그런고로 영원무궁토록 살게 돼? 안 살게 돼? 살게 되는 거죠? **6면에 계속**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삼손의 출생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가난 족속과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들 이방 족속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서 여호와와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였다.

그때 소라 땅에 단지와 자손 가운데 마노아(Manoah; 히브리어로 '휴식 또는 안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분처 사라 부인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하셀렘보니(Hazlelponi)이며 유다지파 에탐의 딸이자 이스마일의 누

## 《9장 사사시대》

# 7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손 이야기 ②

이었다! 당시에 유다의 5대손 소발이 낳은 아들 '르야아'의 활동을 이어받은 족속이 단지와 땅의 성읍, 소라 마을에서 거주했다(역대상 4:1).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와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거든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며 블레셋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할 것이다."

1 Samson, Jewish Encyclopedia. "The mother of Samson [was named] Zleponith, and his sister, Nashyan." -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이] 젤렘포니스(Zleponith)이고, 삼손의 여동생은 나산(Nashyan)입니다." - 출처: [삼손] 유대인 백과사전.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마노아>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나는 두려워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 보지도 못했고 또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므로 그분은 나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 주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여호와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다시 보내시어 마노아의 아내가 발에 나가 있을 때 여호와와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

보 일전에 나타났던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였다. 마노아는 곧 아내를 뒤쫓아 가서, 당신이 저번에 아내에게 말하던 분이냐고 물고,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키워야 합니까?" "네 아내는 내가 말한 것을 모두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일체 먹어서는 안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번제를 바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아직도 그가 여호와와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노아가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

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자, 하나님의 천사는 "네가 어찌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기묘자요 비밀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 와 곡식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제단에서 불길기 하늘로 치솟자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후로 아혜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요" 하였으나,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 번제단의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천사의 제물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 주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를 사이에 있는 마헤단(단의 진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인젤라